

송만갑·이매방·송순섭 등 藝人들 전수관 개관 잇따라

판소리·승무... 예맥 잇는다

강습회 등 개최 후진 양성

광주·전남을 국악의 본고장으로 부르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위상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오히려 세계소리축제를 열고 있는 전주와 국립민속국악원이 자리한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의 저력이 만만치 않다.

판소리와 승무 등 한국 전통 예맥(藝脈)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 것은 그래서 반갑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인 송순섭씨는 30일 순천에 '운산 송순섭 판소리 전수관'을 개관한다.

동편제 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송씨가 고향인 고흥이나 활동지역인 광주가 아닌, 순천에 전수관을 개관한 것은 자신의 스승인 박봉술 선생의 맥을 이어가려는 마음에서다.

동편제의 거장인 박봉술 선생은 태생지는 구례지만, 순천에 오래 거주하며 국악원을 열고 많은 후학들을 가르쳤다. 지난해 순천시는 박봉술 선생을 순천문화인물로 지정했고 묘지 이장, 추모 공연, 학술세미나 등도 지원했다.

소박한 규모로 전수관 문을 여는 송씨는 이곳에서 강습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학생 경연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송씨의 제자들이 판소리 공연을 펼친다.

목포문화회관 1층에 문을 연 '우봉 이매방 춤 전수관'은 '한국 춤의 큰 어른' 이매방 선생의 살풀이와 승무를 전수하는 공간이다.

목포 출신으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와 27호 승무 보유자인 이매방 선생은 한때로 한민족 아기를 찾아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한다.

현재 전수관에서는 김덕속·김은경·김효복·김정기 등 이매방 선생 이수자들이 승무와 살풀이는 물론, 입춤과 삼고무 수업 등을 진행한다. 2개월 과정의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목포시립무용단원, 국립국악원 단원, 목



'한국 춤의 큰 어른' 이매방 선생의 승무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인 명창 송순섭씨

포국악원장 등 전문가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전수관에는 이 선생의 공연자료와 의상 등도 갖춰놓았으며 인근의 향토문화관에 마련된 '이매방 기념관'에는 선생의 일대기, 작품 감상 코너 등이 마련돼 있고 의상과 소품 등도 전시돼 있다. 전수관은 2~3년 안에 독립된 전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전 광대로 정육품까지 올랐던 '동편제의 거장' 송만갑 선생과 유성준·박봉술 선생의 소리 맥을 이어가는 '동편제판소리 전수관'은 송 선생의 고향인 구례군 백련리에 위치해 있다.

전수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5호 '흥보가' 이수자인 마인화씨 등이 1주일에 3회 판소리 강

의를 진행하며 요일별로 북·장구·무용 강의도 진행한다.

인근에 위치한 '송만갑 동편제 판소리 기념관'에는 송순섭을 비롯, 유성준·박봉술의 유품들과 세 사람의 판소리를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체험실도 마련돼 있으며 구례를 대표하는 구례 줄 풍류 관련 자료들도 전시돼 있다.

또 송만갑 선생의 생가도 복원돼 있으며 매년 4월에는 송만갑추모 판소리·고수 대회도 개최한다.

그밖에 보성군의 서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강의를 진행되며 임방울기념사업회 역시 조만간 임방울판소리 전수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환기 화백 '봄의 소리' 내달 경매

김정희 휘호 '동인음관' 등 고미술품도

수화 김환기(1913~1974) 화백의 뉴욕시대를 연 '봄의 소리'가 경매시장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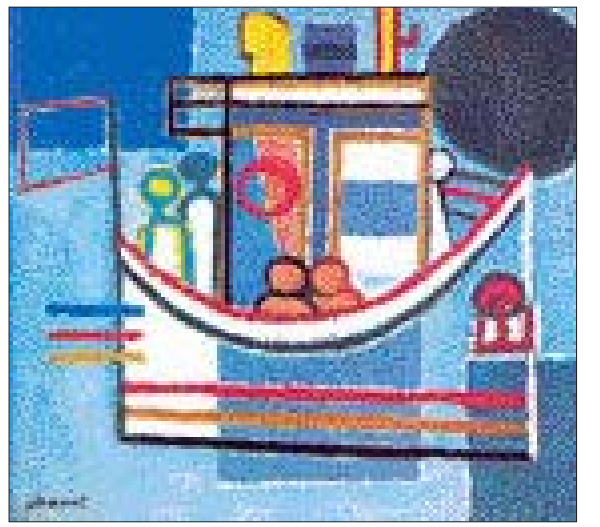
미술품 경매 전문회사 K옥션은 다음달 11일 김환기의 뉴욕시대 점화 '봄의 소리' 등 근현대, 해외, 고미술작품 209점을 경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매의 대표작은 김환기가 뉴욕에서 작업하던 1969년에 그린 '봄의 소리'(153×89cm)로 캔버스 위에 네모꼴 테두리가 쳐진 점을 반복해 찍어나간 점화다. 김환기가 특히 좋아했던 청자의 가라앉은 푸른 빛과 검은 색이 어우러져 있다. 추정가는 11억~14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김환기가 1951년에 그린 유화 '뱃놀이'(추정가 3억~4억원·사진)는 뱃놀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독특한 색감과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 작품으로 1975년 덕수궁미술관에서 열린 김환기 회고전 마지막날 김환기의 부인 김향안 여사가 소장자에게 건넨 작품이다. 김환기의 작품은 이밖에 '새와 달' 등 총 9점이 출품된다.

박수근의 1964년작 '마을'은 25×15cm 크기로 추정가 7억5천만~9억원이 붙었고, 이우환은 최근 경매에서 자주 보였던 '산'이나 '집' 시리즈 대신 '바람' 시리즈 위주로 6점이 나온다. 백남준의 작품은 'TV 첼로'가 1억2천만~1억8천만원, '세기말 인간'은 9천만~1억원에 소개된다.

인기작가인 천경자, 오지호, 장욱진, 이대원, 김창열, 사



석원, 김종학, 김홍수, 오지호 등의 작품, 젊은 작가 이동재, 도성욱, 이동기 등의 작품도 나온다.

고미술품으로는 추사 김정희의 휘호 '동인음관(桐人吟館)'이 추정가 1억8천만~2억5천만원에, 19세기 도자기 '백자청화운룡문호'가 1억2천만~1억8천만원에 출품된다.

경매는 5월 경매에 이어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 리젠스룸에서 오후 5시부터, 사전전시는 7월4~11일 사간동 K옥션 경매장. 문의 02-2287-3600.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클라리넷 연주자 박인수씨 정년연주회

내달 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최근 24년간 몸담았던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정년 퇴임한 클라리넷 연주자 박인수(57·사진)씨가 오는 7월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정년기념 음악회를 갖는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버와 모차르트의 5중주 곡을 골랐다. 현순이·바다연(바이올린), 신정문(비올라), 김창현(첼로) 등 후배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대 음대, 원현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지난 1984년 시향에 입단한 박씨는 교향악단 뿐 아니라 광주목



관내악단 리더로 활동하는 등 독주회, 협연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클라리넷과 호른을 연주하는 두아들 재성(27·독일 아헨 음대), 재민(24·독일 만하임 음대)씨와 함께 가족음악회를 열기도 했던 박씨는 8월 영국 캔포드 썸머스쿨에서 열리는 단기 지휘 코스에 다녀온 후 실내악 공연에 매진할 계획이다. 문의 062-513-24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민미협, 미술대전 문예진흥기금 지원중단 촉구

박물관·미술관 유아 위한 작품해설사 배치

수상자 선정비리로 물의를 빚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이하 미술대전)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행사가 28일 오전 대하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렸다.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전국미술인노동조합 등 미술계 일부단체들은 이날 마로니에 공원 내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미술관 앞에서 "문화예술위는 미술대전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지 말고 국립현대미술관도 미술대전 수상작들을 전시할 공간을 대여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미협의 김운성 사무처장은 "공공기금인 문예진흥기금을 미술대전에 지원하는 것은 낭비이며 진정한 예술인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찾는 유아들을 위해 내년부터 작품 해설사가 배치된다.

문화관광부는 28일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국립 문화시설 15개소에 작품 해설사를 배치하고, 이를 2011년까지 공·사립 문화시설 1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아시설 교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활성화해 내년에 240명을 지원한 뒤 2011년에는 연수 대상을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참여유발 측면에서 유아 시기에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성시합창단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대상

'자유부인' 등 한국고전영화 문화재 등록 예고

26~2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2007 광주 전국 여성합창경연대회(상금 규모 4천200만원)에서 경기도 화성시 여성합창단이 영예의 대상(상금 1천500만원)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지역 12팀을 포함해 전국에서 39개팀, 모두 1천800여명이 참여했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금상=서울송파구립합창단 ▲은상=인천부평여성합창단 ▲동상=광주서구여성합창단 ▲장려상=용인문화원합창단, 거창여성합창단, 서울강서구립합창단 ▲특별상=광주웹버시즈합창단 ▲지휘자상 윤재동(인천부평여성합창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재청(청장 유희준)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유부인', '미몽' 등 7편의 한국고전영화를 등록문화재로 등록·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등록 예고된 작품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한국영화인 '미몽'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자유부인' ▲초기 멜로·액션영화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자유부인' ▲유일한 현존

한국무성영화인 '검사와 여선생' ▲신과성을 배제하고 모정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그린 '마음의 고향' ▲반공법 위반으로 상영이 금지된 '피아골' ▲최초의 해외 영화제 수상작인 '시집가는 날'이다.

7편의 영화는 30일 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연합뉴스

movies

이제야 웃을 수 있어!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약국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트랜스포머 (12세)	최고급관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오션스 13 (12세)	
4관	4.4.4. (18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씨노이들 (18세)	
7관	러브앤티트러블 (15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8관	검은집 (18세)	
9관	트랜스포머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와이니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4.4.4. (18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 13 (12세)
5관	슈렉3 (전세) / 4.4.4. (18세)
6관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월드시랑 영화시랑 *에매-www.joycbs.com/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대문)

1관	오션스 13 (12세)
2관	아린이전용관 열세살 수아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슈렉3 (전세) / 4.4.4. (18세)
6관	슈렉3 (전세) / 뜨거운 녀석들 (18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황진이 (15세)
9관	검은집 (18세)
10관	트랜스포머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연결 번호 (1번 or 2번) -1번 or 2번-

콜롬버스 해남점 (107번) 점리리 상영중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4.4.4. (18세)
2관	오션스 13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슈렉3 (12세)
8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9관	검은집 (18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점심 메뉴를 위한 전용영구 비어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

세로시네마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오션스 13 (12세)
4관	검은집 (18세)
5관	4.4.4. (18세)
6관	슈렉3 (12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